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 떼를 치고 있다. 세겜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벤엘 대신 택했던 곳으로 디나 사건으로 인한 피의 복수와 약탈이 있었던 곳이다. 세겜에서 양 떼를 먹이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다. 아들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염려한 야곱이 요셉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려 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 창세기 37:14

형제들은 세겜을 떠나 도단에 도착해 있었다. 세겜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나보다. 세겜에서 형제들을 만나지 못한 요셉이 수소문 끝에 도단까지 찾아왔다. 또 무슨 잘못을 캐내어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여기까지 오는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한다. 깊은 구렁이에 던져 죽게 만들고 아버지에게는 사자나 늑대 같은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렁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창세기 37:20

모든 형제가 요셉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르우벤이 나섰었다. 그는 장남이다. 만약 요셉이 죽게 되면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것이다. 이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것이 발각되어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죽이지 말자, 구렁이에만 던지고 손 대지 말라. 큰형 르우벤이 말하지만 형제들은 대꾸 한마디가 없다. 답답한 르우벤은 나중에 돌아와 요셉을 구출할 생각을 하며 자리를 떠난다.

요셉을 구렁이에 던져 넣은 형제들이 허기를 채우고 있을 때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난다. 고대도시 도단은 애굽을 오가는 상인들의 무역로에 있었다. 상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었다. 이스마엘 상인을 본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 창세기 37:26-27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자 했다. 그래도 이스마엘의 후손, 한 핏줄이니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값을 치루고 요셉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었다. 유다 나름대로 고뇌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유다가 생각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나중에도 유다는 요셉을 구해내지 못했다.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상품이 되어 애굽으로 끌려간다.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벗겨낸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야곱에게 보여준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 창세기 37:31-32

형제들이 야곱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이다. 아우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다. 형제들은 요셉을 형제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린 비밀을 끝까지 지켰다. 르우벤도, 유다도 야곱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어보였다. 야곱의 상실은 계속되었고 어느 아들도 야곱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다.

요셉에게는 어느날 갑자기 닥친 불행이었고, 야곱에게는 그가 움켜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약하신 일을 이루는 첫 걸음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체류와 출애굽,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실현되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창세기 15:13-14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현실은 절망과 참혹함으로 채워진 물 없는 구덩이일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의 좌절 때문에 아주 쓰러지지는 말자.